

육아정책 소식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국무총리실에서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둘째,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내년 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단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하나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5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억원 증액되었고,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또한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0,000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기존의 월급형태 지원방식 외에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채용된 시간연장 보육교사 외에 일반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우리집 주변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알아보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찾기'를 클릭한 후 지역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치원에서 다문화교육, 컴퓨터중독 예방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교육, 컴퓨터중독 예방교육, 장애아 통합교육 등과 관련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전국 유치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세계 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자료」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와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아기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주고 세계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발간된 자료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전국의 유아교육담당 강사요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자료 활용 연수를 이미 마쳤다.

자료집은 유아기 발달에 적합하고 흥미로운 창작동화와 동요, 게임 등 총 36종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 내용은 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어느 곳 이든지 직접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홈페이지 자료 교실에 탑재되어 있다.